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ZOOM IN 서남아시아, GVC재편의 중심



KOTRA 서남아지역본부 | kotra



ZOOM IN 서남아시아,
GVC재편의 중심

CONTENTS

I

코로나 영향과 2021년 전망

II

서남아 비즈니스 환경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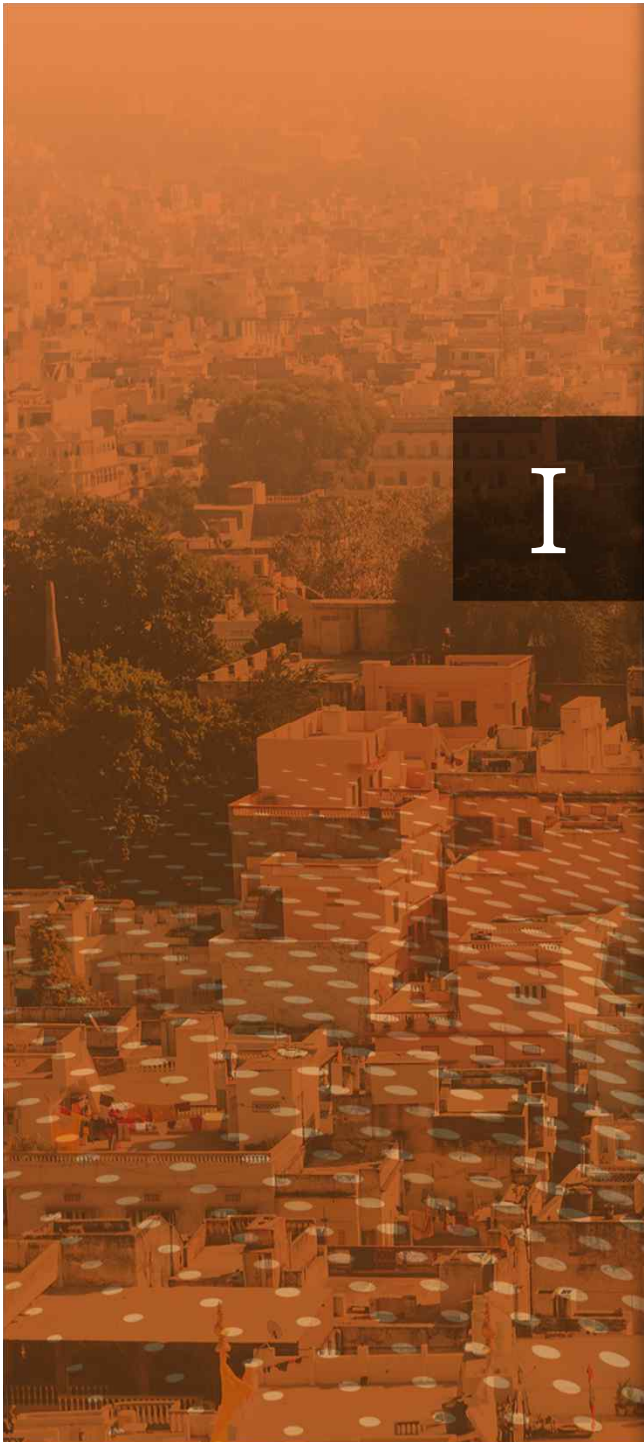
한-서남아 경제 교류

IV

주요이슈별 유망품목과 진출전략

V

KOTRA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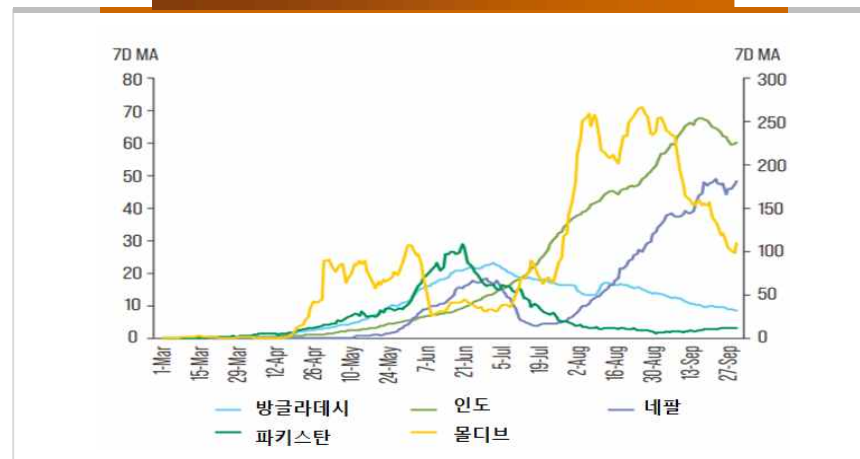
I 코로나 영향과 2021년 전망

1. 코로나 확진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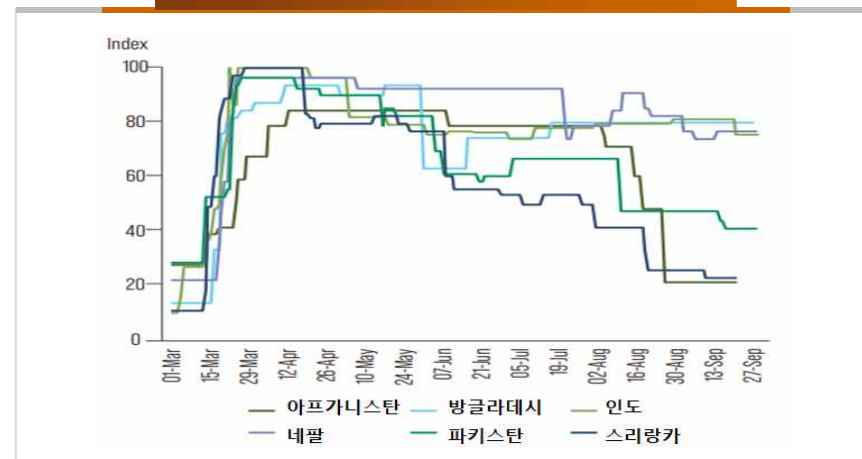
서남아



백만명당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서남아 각국 정부의 봉쇄 정책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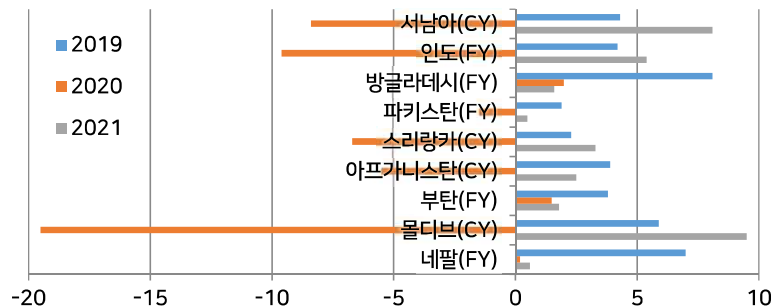
* 자료 : World bank, South Asia Economic Focus, 2020년 가을호

2. 주요 지표 동향 및 전망

서남아

GDP 변화

< 서남아 : 4.3% → -8.4% → 8.1% >



* 자료 : World Bank('20.10월)

물가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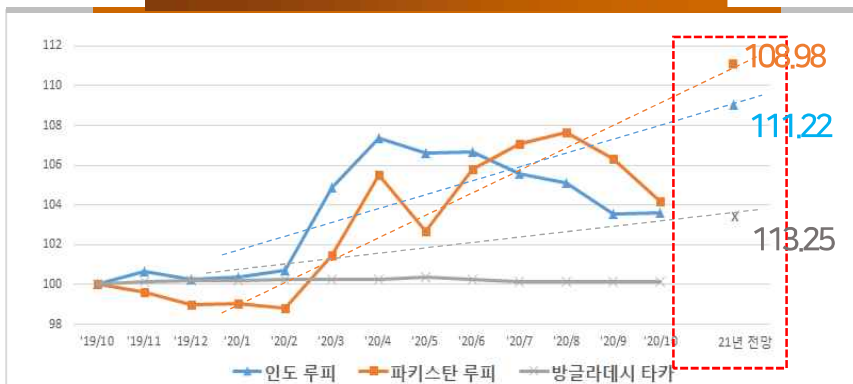
	2020	2021
서남아(CY)	5.6	4.4
인도(FY)	6.4	5.3
방글라데시(FY)	5.6	5.2
파키스탄(FY)	9.4	9.9
스리랑카(CY)	4.2	4.7

* 자료 : IHS Country Report ('20.10월)

* 주 : CY(달력연도), FY(회계연도), 2020년 잠정치, 2021년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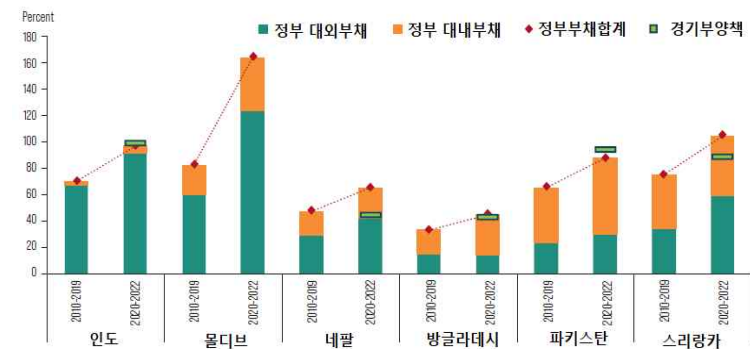
* 회계연도 : 인도 4월 ~ 다음해 3월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7월 ~ 다음해 6월

주요 환율 변동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정부 부채 전망



* 자료 : Worldbank, South Asia Economic Focus, 2020 가을호

3. 경기부양책

서남아

초기 부양책

재정지원

▶ 저소득층 구호 지원

- [인도] '20년 3월 저소득층 대상 현물·현금 지원 등 약 225억 달러 규모 긴급 경기부양책 발표
- [파키스탄]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현금 지원(750억 루피), 1,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1,500억 루피)
- [방글라데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

▶ 금리 인하

- [인도] 5.15% → 4.40% → 4.00%
- [파키스탄] 13.25% → 7%
- [방글라데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9.66 → 7.82
- [스리랑카] 대출 이자 17% → 11%

▶ 의료 서비스 지원

-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후기 부양책

산업구조 개편

▶ 산업 육성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제조업 육성
-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 정책 금융

- 고용유지 자금지원

▶ 경기 활성화

- 건설 분야 예산 확대
- 신재생 에너지 개발

4. 인도 경기부양책 (Self-Reliant India)

서남아

▶▶▶ 1차 ('20.5.12) : GVC 중심역할 강조

- ✓ 5대 코로나 극복방향 제시 : 자력(Self-reliant) 극복
 - ① (Economy) 쿼텟점프 경제 ② (Infrastructure) 인프라 고도화 ③ (System) 21세기 기술 기반 시스템
 - ④ (Demography) 구매력 인구 증가 ⑤ (Demand) 글로벌 공급망 변화부응 수요
- ✓ GDP의 10%인 20조 루피(한화 약 320조원)규모의 구제 및 지원정책 추진
- ✓ 인도의 세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서 핵심, 중심역할 강조

▶▶▶ 2차 ('20.10.12) : 디왈리를 앞두고 소비진작

- ✓ 인프라 확충 : 연방 인프라 확충(34억불), 동북부 인프라개발 및 주별 인프라 확충 등
- ✓ 소비진작 : 연방공무원 급여 선지급 / 공무원 여행 수당 및 휴가 보상비 지급

▶▶▶ 3차 ('20.11.12) : 산업 정책 구체화

일자리 창출 월급여 Rs.15,000 미만인 신입직원, 실직 후 신규 채용된 직원대상 지원	중소기업 대출 긴급 신용한도 보증 지원 (~'21.3.31), 원금상환 1년 유예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기존] 전기전자, [추가] 제약 및 의약품/ 통신 네트워크/ 식가공품/ 태양광 등 추가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지역 주택공급
건설·인프라 지원 예치금 및 성과보증금 비율 완화 (5~10% → 3%)	방위산업, 그린에너지 지원	농촌 비료지원 농촌지역 고용 촉진	코로나 백신 개발 R&D센터 지원







II

서남아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 & 외교 환경

서남아

정부의 코로나 19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지지율 상승

-  **인도** '강한 인도'를 위한 인도내 체질 개선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
-  **방글라데시** 코로나에서 일관적인 정책 유지로 10년간 플러스 성장세 지속
-  **파키스탄** 임란칸 총리는 군부의 지지 하에 단호하고 일관된 개혁 정책 추진
-  **스리랑카** '19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20년 8월 총선을 통해 국민적 지지 확보

인도 VS 파키스탄

'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이슬람 주민이 많았던 카슈미르가 인도에 병합되면서 갈등 지속



인-파 교역 중단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코로나로 양국간 분쟁은 유예 양상



인도 VS 중국

'20.6.15일 국경 충돌로 인도군인 20명 사망. '62년 인중 전쟁 과 '75년 분쟁 이후 45년만에 사상자 발생



인도내 반중 정서 급격 악화
중국산 제품 수입금지,
중국자본의 對인도 투자 금지 조치

2. 경제 현황 및 전망

서남아

2020년 경제현황

중소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 임금하락 심각

생산 위축

- 항공운항 중단, 내륙운송 중단, 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중단
- 이주 노동자의 고향 복귀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

소비 침체

- 실업률 증가 ('20.4~5월 실업률이 20%대 기록)
- 개인 소득의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증가

물가 상승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로 유동성 증가
-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식품 가격 상승

투자 감소

- 세계적인 투자침체(-49%)의 영향으로 서남아도 (-31%) 감소
- 단 디지털 분야의 M&A와 전기분야의 그린필드 투자 증가

인도



- 경제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 '20년 9.6% 침체, '21년 경제 4.5% 반등
- 1인당 소득은 '19년 추정치보다 6% 감소

파키스탄



- IMF 구조조정과 코로나 19 충격으로 70년 만에 역성장(-1.5%, '19/20) 시현전망

방글라데시



-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플러스 성장 전망

스리랑카



- '19년 테러와 '20년 코로나로 '20년 GDP는 -6.7% 예상
- 중상위 소득국 → 중하위 소득국 (WB, '20.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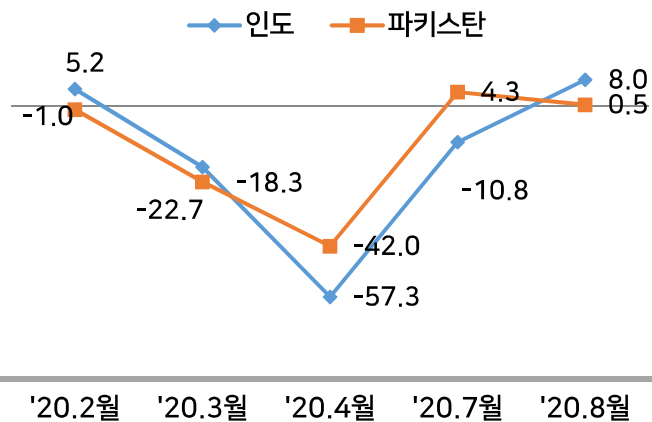
3. 산업 환경

서남아

제조업 피해

- ✓ 봉쇄가 시작된 '20.4월에는 산업생산이 40% 이내로 낮아졌으나, 11월 현재 대부분 국가의 산업생산이 회복
- 초기에는 공장 폐쇄 등으로 생산이 감소되었으며,
- 이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구입가격 상승 상품 수요에 대한 축소로 생산 산업 생산 감소 지속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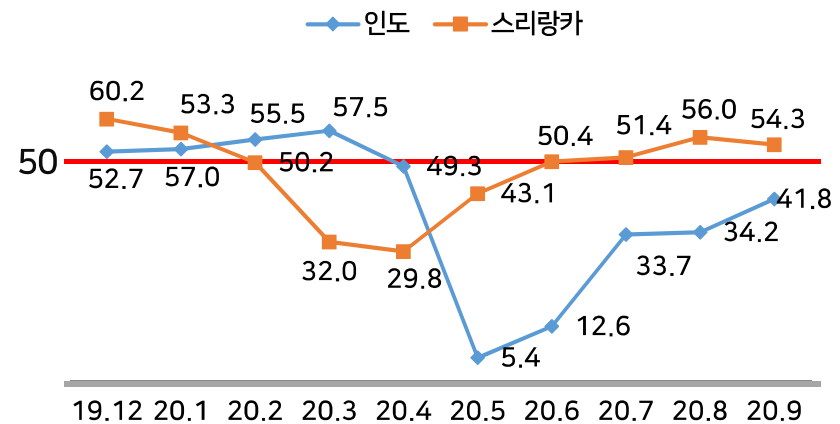
인도와 파키스탄 산업생산 회복세



서비스업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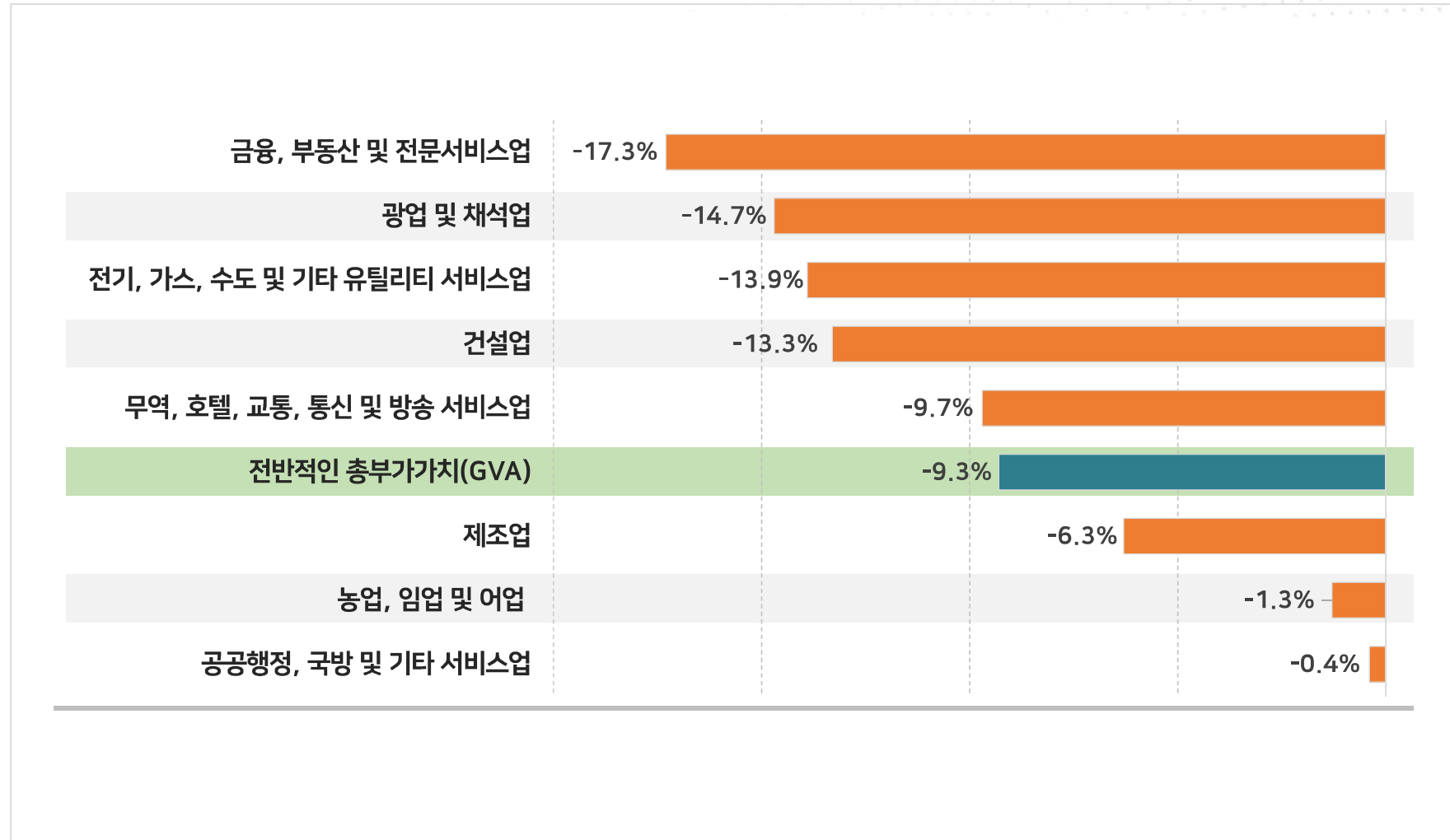
- ✓ 엄격한 봉쇄 조치에 따라 관광, 여행, 물류, 교통 등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텔, 식당, 항공 등 침체
- 서남아 관광사업은 GDP의 6.6%를 기여하나 코로나로 인해 500억불 이상의 손실 추산(세계 여행 관광협의회 WTTC)
- 몰디브는 관광산업이 GDP의 56.6%, 고용의 59.6% 차지
- 서비스 PMI는 사상 최저로 하락

인도와 스리랑카의 서비스 PMI



4. 주요 산업별 4~6월 영향(인도)

서남아



* 자료 : Statist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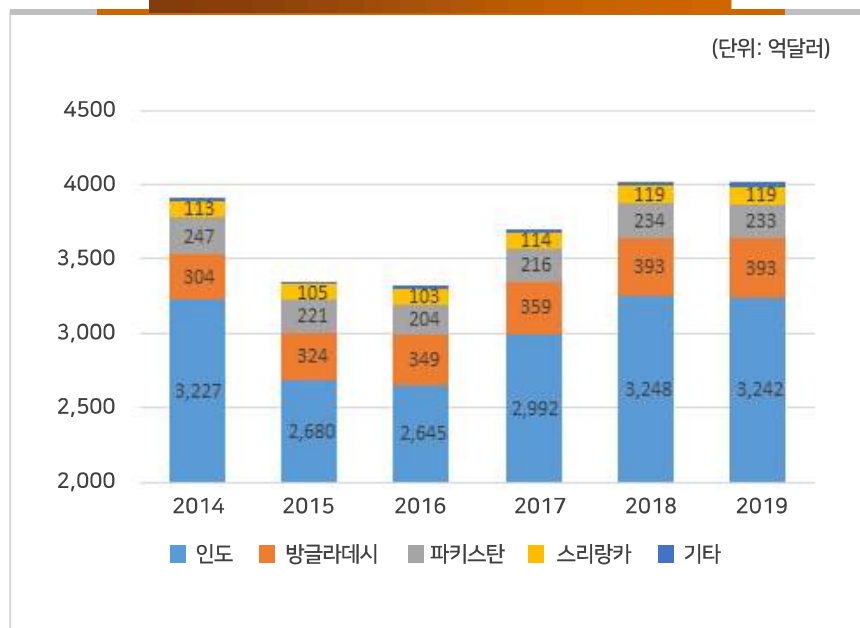
5. 서남아 수출입 (코로나 전)

서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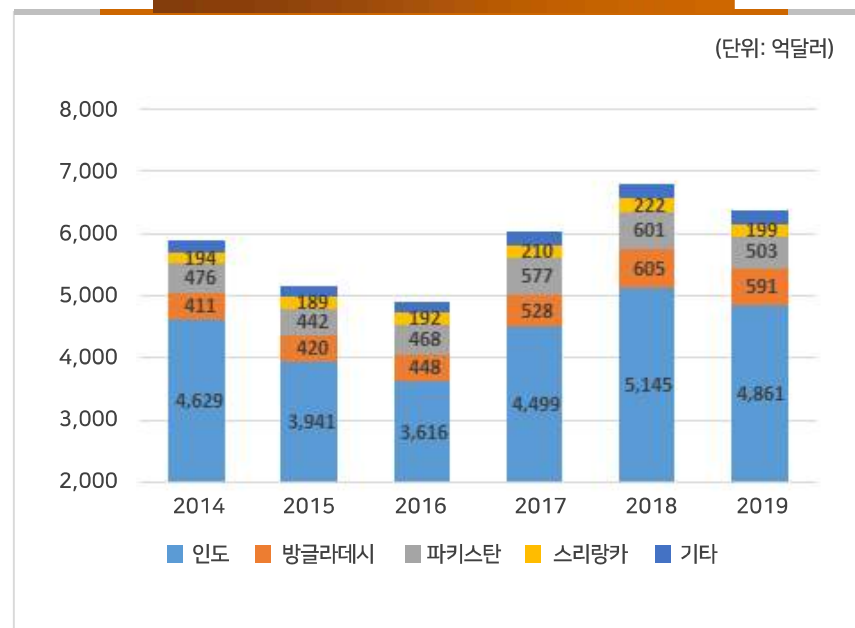
✓ 서남아는 '18년에 역대 최대 수출, 수입액을 기록한 후 '19년에는 4,018억달러 수출, 6,390억불 수입 기록

- 인도가 전체 서남아 수출의 약 80.7%, 수입의 76.1%를 차지
 - 서남아 내 수출 비중('19년, %) : 인도 80.7, 방글라데시 9.8, 파키스탄 5.8, 스리랑카 3.0
- '19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2% 기록
 - 국가별 수입 증감률('19년, 전년비, %) : 인도 -5.5, 방글라데시 -2.3, 파키스탄 -16.2, 스리랑카 -10.3

수출추이



수입추이



* 자료 : UNCTAD

6. 서남아 수출입 (코로나 후)

서남아

- ✓ '20년 교역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예년 대비 개선됨
 - 수입액 감소에는 코로나로 인한 통관 중단 이슈도 있지만, 전년대비 배럴당 18.23달러 하락한 유가하락이 가장 큰 요인
 - 단, 내년에는 유가 인상 전망으로 교역액 증가 전망 ('20년 평균 유가 38.76달러 → '21년 44.72달러, EIA, '20.10월 전망)

교역 순위*	국가명	2019년			2020년(1월~7월)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지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지
-	세계	186,940 (-4.2)	189,885 (-3.1)	-2,944	95,197 (-12.7)	97,067 (-12.1)	-1,870
15	인도	3,219 (0.8)	4,833 (-6.5)	-1,614	1,497 (-22.5)	1,987 (-31.0)	-491
55	방글라데시	359 (12.8)	553 (-1.8)	-194	163 (-24.3)	258 (-22.5)	-95
59	파키스탄	233 (5.7)	500 (-24.6)	-267	119 (-12.8)	250 (-18.0)	-131
83	스리랑카	100 (-17.5)	235 (10.2)	-135	54 (-12.7)	94 (-27.0)	-40

* 자료 : IMF

* 주 : 교역순위는 2020년 7월 누적 기준

7. 서남아의 주요 교역대상국

서남아

2019년 서남아 국가의 수출대상국

		수출액(Mil\$)	비중(%)
對세계		382,281	100.0
순위	역내*	28,937	7.3
1	미국	64,831	17.0
2	UAE	31,317	8.2
3	중국	20,092	5.3
4	독일	14,809	3.9
5	영국	14,100	3.7
6	홍콩	12,324	3.2
7	싱가포르	11,118	2.9
8	네덜란드	10,828	2.8
9	이탈리아	7,931	2.1
10	프랑스	7,923	2.1
17	일본	5,972	1.6
18	한국	4,981	1.3

2019년 서남아 국가의 수입대상국

		수입액(Mil\$)	비중(%)
對세계		606,714	100.0
순위	역내	30,636	7.6
1	중국	99,594	16.4
2	미국	40,622	6.7
3	UAE	39,032	6.4
4	사우디	31,360	5.2
5	이라크	22,812	3.8
6	싱가포르	20,504	3.4
7	인도네시아	19,521	3.2
8	스위스	19,043	3.1
9	한국	18,791	3.1
10	홍콩	18,461	3.0
11	일본	17,963	3.0

* 자료: IMF

* 주: 합계는 서남아 주요 4개국의 수출입 합계, 순위는 합계 기준

8. 서남아의 주요 교역 품목

서남아

▶▶▶ 인도



- 광물연료, 보석 및 귀금속의 교역이 가장 활발 ('19년 수출기준 25.2%)
- 컴퓨터 등 기계류, 유기 화학물의 교역도 큰 비중

▶▶▶ 방글라데시



- 최대 수출 품목은 봉제의류 (전체 수출의 80% 차지) /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의 섬유 제품 수출국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으로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등지에서 최혜국 관세제도(GSP)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의류를 수출 중이며, 이는 방글라데시가 세계 2위의 의류수출국가가 된 원동력

▶▶▶ 파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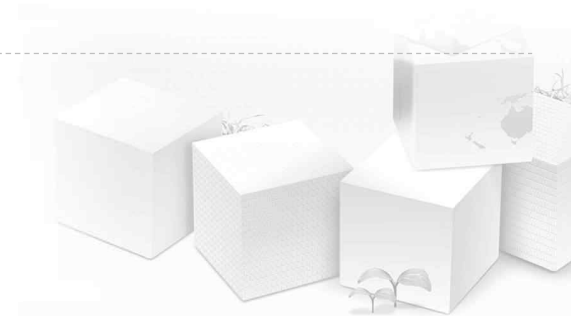


- 섬유 제품이 최대 수출 품목이며, 19/20년 기준 전년대비 5.9% 증가한 128억 달러 수출
- 화학 및 의약품(-13.95%), 기타 제조업 제품(-8.36%), 기타제조업제품(-8.36%), 스포츠 용품(-11.82%), 가죽제품(-4.67%)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

▶▶▶ 스리랑카



- 주요 수출품은 의류(45.6%), 커피·차·향신료(13.6%) 등
- 수입품은 광물연료(17.6%), 기계류(7.3%), 차량(6.8%)



9. 서남아의 투자유치

서남아

- ✓ '20년 상반기 서남아의 FDI는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1% 감소 (같은 기간 전세계 FDI 49% 감소)
 - 그간 서남아에서 가장 큰 투자유치를 해 온 인도는 170억불을 유치해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으나, Digital 분야 M&A는 전년의 두 배 달성
 - 구글 100억불, 페이스북 57억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15.5억불, 폭스콘 10억불 등 인도 디지털 분야에 투자
 -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의류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용 의류생산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감소하여 방글라데시(-78%)와 스리랑카(-97%)가 큰 타격

	서남아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				국가 신용도 등급		
	2016	2017	2018	2019	한국 수출입은행	Moody's	Fitch
서남아 전체	50,909	46,623	49,852	55,921	-	-	-
인도	44,481	39,904	42,156	50,553	B2	Baa3	BBB-
방글라데시	2,333	2,152	3,613	1,597	C3	Ba3	BB-
파키스탄	2,576	2,496	1,737	2,218	E	B3	B-
스리랑카	897	1,373	1,614	758	D1	B2	B-
몰디브	457	458	539	565	E	B3	B
네팔	106	198	67	185	D2	-	-
아프가니스탄	94	53	119	39	E	-	-
부탄	-34	-10	6	7	D2	-	-

* 자료 : UNCTAD, FDI/MNE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

* 한국수출입은행 ('20.8월말 기준)

10. 인프라 프로젝트

서남아



인도는 '24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 고속도로 확충 (450억 달러), 농촌 인프라 강화(140억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 펀드 지원 (100억 달러),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140억 달러)
-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국 인프라(도로·상수도 등) 개선 및 국방사업(34억 달러)을 추진하고, 州 인프라 확충(16억 달러) 사업 확대



방글라데시는 '21년 중진국 진입을 위해 인프라 개선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GDP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을 35% 이상 유지 노력

정부의 재정 취약으로 대외차관, PPP 방식의 프로젝트 개발

- 특히 중국(230억 달러)과 일본(59억 달러)의 정부 차원 투자 급증



파키스탄은 인프라 개발부문 민간투자 유치규모(PPI)가 '19년 기준 32억 달러로 서남아에서는 인도 다음인 2위

- '19년에는 전력 송배전 라인*과 풍력발전 투자 중심으로 민간 투자의 유입이 증가

* The Matiari-Lahore Transmission Line Project은 파키스탄에서 최초로 PPI 방식(외국인 투자 포함)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전력 송배전 라인(Power Transmission Line) 구축 프로젝트임



'포괄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예산제약에도 사회간접 자본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 중

- 최근에도 고속도로, 도시주택, 관개설비, 항구, 공항, 전력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특히 통신과 물류기반이 민간 기업 참가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갔고, 콜롬보를 서남아 최대의 글로벌 도시로 개발시키는 콜롬보 항구도시 프로젝트도 진척 중



III

한-서남아 경제교류

1. 신남방 비즈니스

서남아

한-인도 교류



1950년대

1970년대

'90-'00년대

2010년대

한국전쟁
참전

외교관계
수립

최초 정상
상호 방문

파트너십 구축
및 심화, 확대



한-인도 교류 반세기
한-인도 CEPA개정

신남방정책

People
Prosperity
Peace
Future



2. 한-서남아 수출입 ('20년 9월 누적 기준)

서남아

- ✓ '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對서남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 (對세계 수출 감소 -8.6%)
 - '20.9월 누적 수출증감률(%) : (對인도) -28.4, (對방글라) -18.9, (對파키스탄) 18.8 (對스리랑카) -32.4
 - 파키스탄은 최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세 견인 ((수출액) 175백만불, (증감률) 전년동기비 282.5%)
- ✓ 우리나라 무역수지에서 서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10%대에서 '**19년 28.4%**로 크게 증가
 - 서남아 정부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
- ✓ 서남아 수출 기업은 **12,330개사**(19년 기준, 전세계 99,125개사)이며, 그 중 97%는 중소·중견기업(금액에서는 42.1% 차지)

	2019년		2020년 (9월 누적)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전세계	542,233	503,343	370,969	-8.6	343,356	-9.1
서남아 합계	17,554	6,492	10,163	-25.5	4,288	-11.3
인도	15,096	5,565	8,470	-28.4	3,718	-9.6
방글라데시	1,282	405	759	-18.9	308	-2.0
파키스탄	833	419	739	18.8	171	-48.0
스리랑카	235	100	118	-32.4	89	13.8
네팔	48	3	43	12.1	1	-25.4
몰디브	7	0	4	-26.2	0	-41.1
아프가니스탄	50	0	22	-42.3	1	2,986.4
부탄	2	0	8	566.0	0	86.3

한-인도간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달러로
확대 합의

'18.7월
정상회담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를 참고 KOTRA에서 작성

3. 한-서남아 주요 수출 품목 ('19년 기준)

서남아

- ✓ 對서남아 수출 품목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전체의 82.3%를 차지 (전세계 평균 70.7%)
- ✓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22.7억불)로 전체 수출의 13.0%를 차지하며, 그 뒤를 반도체(8.4%), 합성수지(8.3%), 자동차부품(6.7%)가 차지
 - 미국의 철강관세 인상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이 판로를 변경하며 대인도 철강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수입규제로 수출 감소세
- ✓ ('20.9월 누적 기준) 수출 증가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전년 동기대비 2배), 기타 정밀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조명기기 등
 - ('19년 기준)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자동차 부품(전년비 20% 증가), 철도차량 및 부품(238.4%), 자동차(105.4%) 등 수송기기가 선전

'19년 對서남아 주요 수출 품목

순위	MTI	품목명	금액(백만불)
1	613	철강판	2,265
2	831	반도체	1,465
3	214	합성수지	1,452
4	742	자동차부품	1,168
5	133	석유제품	881
6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453
7	753	금형	416
8	711	원동기및펌프	410
9	213	석유화학합성원료	399
10	626	아연제품	361

'19년 對서남아 주요 수출증가 품목

MTI	품목명	금액(백만불)	증가율(%)
742	자동차부품	1,168	20.0
753	금형	416	40.1
213	석유화학합성원료	399	82.4
226	농약및의약품	241	22.6
970	무기류	156	89.6
612	선재봉강및철근	127	33.1
744	철도차량및부품	92	238.4
449	기타섬유제품	92	20.0
741	자동차	92	105.4
512	가구	34	35.6
733	의료용기기	31	20.6

* 자료 :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를 참고 KOTRA에서 작성



4. 한-인도 CEPA _ 서남아내 유일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서남아

➔ 한-인도 CEPA업그레이드 [2018년 12월 현재 7차 개정협상 완료]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발효 이래 경제교류 확대의 첨병 역할 ✓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FTA협정 대비 낮은 양허수준 •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움 • '18년 기준 활용률 (수출) 70.9%, (수입) 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력품목(철강, 화학)의 양허율 확대 기대 ✓ 신규 유망품목(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완화 기대 ✓ 인력시장 개방시 인도 IT인력 활용 증대 등 <div> <div>예시</div> <div> 화장품 (HS3304) 기본관세 20% 협정관세 0%로 양허시 총관세율 기준 25.96%p 절감효과 </div> </div>

➔ 무역원활화 협정과 관세통관 행정의 개선 ['18년 3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계획 제출 완료]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무역원활화 지표 1.25점에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균 1.15, 최고점은 1.85 (한국 1.82점) ✓ 악명 높은 통관 행정. 진출기업 주요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수출애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대비 어려움 많다 이상(60%) - 진출시 애로점 : 관세 등 세금(14.7%), 통관절차 불명확(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12개조 71개 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조치 : 44항목, 세관당국간 협력 등 - 2022년까지 완료 :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 ✓ 기업환경개선의 일환,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div>   </div>

5.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서남아

수출 성공 사례

- 방글라데시에서 공작기계는 아직 모터사이클, 차량, 생활가전에 국한되지만,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특히 가전 관련 제조업, 그 중에서도 냉장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시장조사 결과 현지 가전 제조 대기업 'Walton' 또한 기존 생산라인을 증축 중으로, 공작 기계 분야는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 H사는 무역관 주최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등 현지 진출에 관심이 많았던 바, '19.3월 지사화 사업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
- '20.3월 제품을 납품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8월 현지에 방문, 설치를 완료함. 무역관은 계약 성사 지원과 더불어 제품 설치 지원을 위해 현지 입국 전 자가 격리, 비자 및 항공권 발급 등을 지원함
- '19.10월 \$45만, '20.3월 \$80만의 성약을 창출했으며, 이는 최초로 방글라데시에 수출된 한국산 프레스기계임

수출 실패 사례

- 코트라 해외진출 토털 패키지(2017. 9. 22~2018. 3. 21)에 참가하여 파키스탄 주요 7개 도시 LED 공공조달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 추진
- 신규 개발되는 B타운 공공조달 프로젝트(2만 5,000개) 입찰에 참가. 참여기업 9개사 중에 2개사 제품이 낙찰되었으나, B사는 선정되지 못함
- 타깃 조달시장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낙찰 유력 가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현지 조달시장의 특성상 만족스러운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낙찰에 실패**
- 서남아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다소 마진이 작더라도 초기에는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뒤, 구매 고객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격 전략과 제품 개발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



6. 한-서남아 투자

서남아

- ✓ '19년 한국의 對서남아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11.7억불) 53.9% 감소한 5.4억불이었으며, 신규법인수는 전년대비(144개사) 14.6% 증가한 165개사
 - 전체 서남아 중 인도는 투자금액기준 82.7%, 신규법인수 기준 78.8% 차지
- ✓ '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는 전년대비 약 2배정도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투자도 증가
- ✓ [업종] 최근 5년내 서남아 투자금액의 75.9%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 뒤를 부동산업(5.3%), 건설업(4.3%), 도소매업(3.5%)이 뒤따르고 있음
 -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전체의 49.2%를 차지하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도 높은 비중

한국의 對서남아 투자현황

	신규법인수(개사)			투자금액(백만불)		
	2018	2019	2020.6월	2018	2019	2020.6월
인도	119	130	43	1,072	447	362
방글라데시	16	17	7	15	29	9
파키스탄	4	6	0	75	47	37
스리랑카	4	4	1	1	2	1
네팔	1	8	0	9	15	7
서남아 합계	144	165	51	1,172	540	416

*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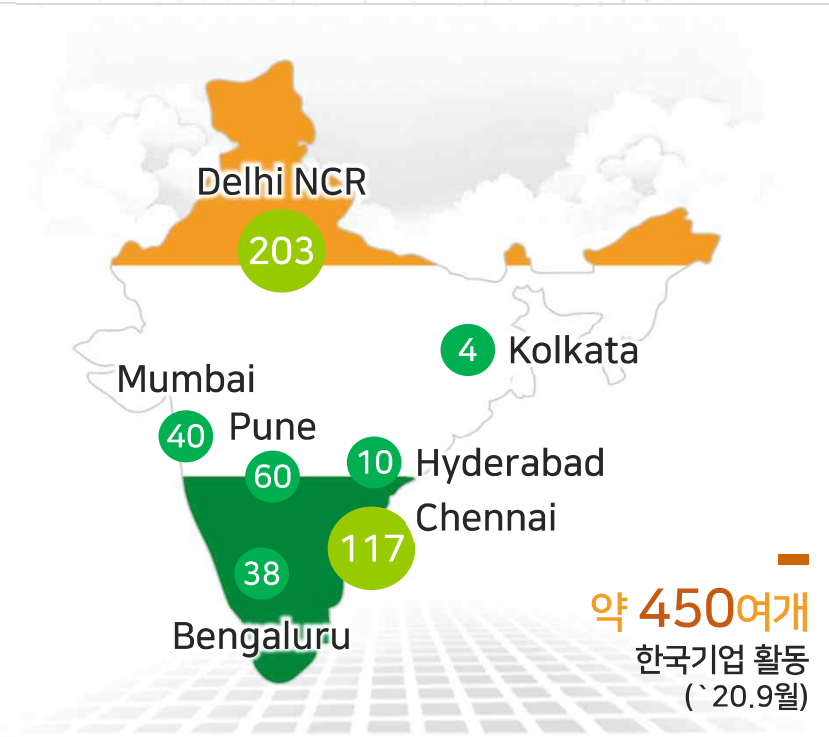
7. 한-서남아간 투자

서남아

▶▶ 한국



▶▶ 인도



**섬유산업 집중,
최근 프로젝트 투자 증가**

영원무역(의류/신발, '80년 진출, 종업원 5.5만명)
HKD(텐트, '91년 진출, 종업원 6천여명)
파드마대교 시공감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참여



**중-파키스탄 경제회랑('14/'15년)
이후 투자 급속 감소**

투자기업은 23개이나 발전 프로젝트 건설기업
제외 시, 제조업 부문은 소수
롯데 케미칼 파키스탄, 롯데 콜슨, 대우고속버스



**30년 내전 종식('09)이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재개**

카니발월드코랑카(고무풍선, 장갑),
스카이라인(야구공), 구룡랑카(의류원부자재),
피스랑카(의류), 영안랑카(모자),
구상랑카(스포츠장갑) 등

8. 투자 성공 사례 코로나 진단키트 S사

서남아

2000년초

인도 시장 진입과 시장 확대 타당성 모색 및 판매 법인 설립



- 인도는 거대한 인구, 만연한 질병, 고가의 검사장비를 구매하고 운용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전력공급 부족으로 신속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진단 장비가 필요한 상황
- 인도는 판매단가가 낮은 반면 관세와 운송비가 높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설립('15년)
- 인도 영업망 구축 및 품목인허가를 위해 현지 전문 컨설턴트 등 현지 인력을 적극 고용
- 진출 2년 만에 매출 250만불 달성, 매년 70%의 성장세, 인도 진단시약 시장 1위 기록

'15~'20년

인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투자 단행, 공격적 제조 및 판매

- '15년부터 인도 공장부지매입과 라인을 세팅하였으며, '17년 인도 공장 가공
- AIDS, Dengue, Malaria, 간염 신속 진단 시약을 인도 내 저가로 제조 및 판매 시행

코로나 전후

K방역의 선두주자로 인도에서 선전



- '20년 8월 누적 기준, 한국 본사에서 생산한 진단키트를 136개국에 3억 4천만불을 수출
- 對인도 수출은 1억 3천만불로 對세계 수출의 40% 차지
- '20년 10월 4일 기준 인도내 코로나 TEST는 8백만건이며 이중 S사가 인도 정부에 납품한 키트는 5.6백만개에 달해 인도 코로나 Test 시장의 70%를 공급 중



IV

주요 이슈별 유망품목과 진출전략

1. SWOT분석

서남아

강점(Strength)

- ▶ 한국인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 ▶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 적용 가능
- ▶ 20년 이상 된 서남아 투자 진출 경험
- ▶ 디지털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성공 경험
- ▶ 복잡한 절차와 행정에 빠르게 적응 가능



-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 ▶ 경제 부흥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 ▶ 국민소득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
- ▶ 인-중 분쟁으로 反중국정서 확산
- ▶ 미-중 분쟁으로 GVC 투자처로 위상 변화

기회(Opportunity)

약점(Weakness)

- ▶ 가격에 대한 민감한 서남아 소비자
- ▶ 서남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보 부족
- ▶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조치
- ▶ 만성적인 對한국 무역적자
- ▶ 물가상승에 따른 환율 하락



- ▶ 이주노동자의 귀향으로 노동력 부족
- ▶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소비, 투자심리 위축
- ▶ 거래 대금 지연 문제 발생
- ▶ 전력부족 등 열악한 비즈니스 인프라
- ▶ 코로나19 확산 및 테러 및 치안 불안

위협(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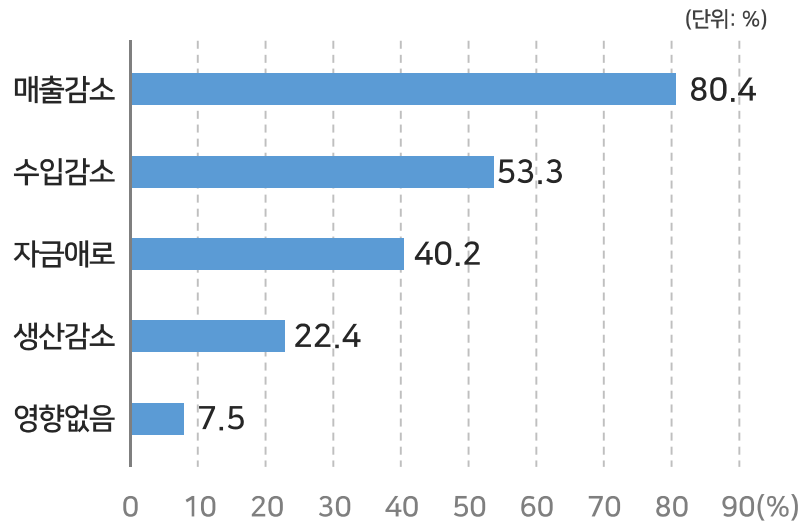
2. 한-서남아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1)

서남아

- ▶ 설문 기간 / 설문 방법 : 2020.10.8(목) ~ 10.20(화) / 온라인 설문
- ▶ 설문 대상 및 응답자 수 : KOTRA 관리 서남아 바이어 107개사

코로나 피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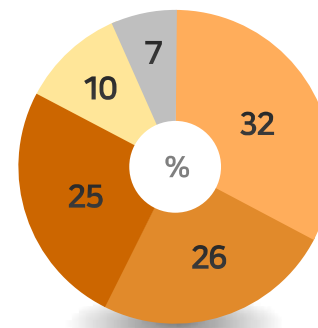
- ✓ 전체 응답자의 92.5%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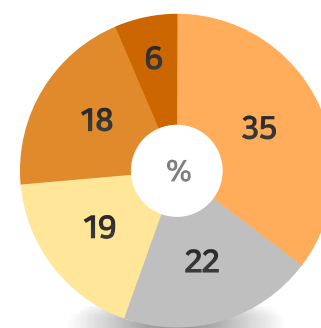
'21년 매출 전망

- ✓ '21년 매출 감소세는 '20년 대비 다소 둔화되나, 78.5%가 매출 감소 예상

<2020년 매출 영향>



<2021년 매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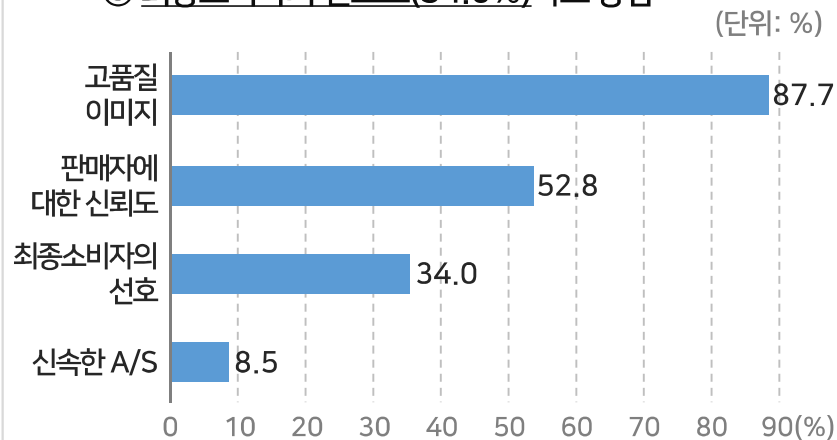
- 10%미만 감소
- 10%이상~30%미만 감소
- 30%이상~50%미만 감소
- 50%이상 감소
- 영향없음, 혹은 매출 증가

2. 한-서남아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2)

서남아

한국제품의 매력 포인트

- ✓ 한국제품 구매시 매력포인트는
- ① 고품질 이미지(87.7%)와
 - ②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52.8%),
 - ③ 최종소비자의 선호도(34.0%)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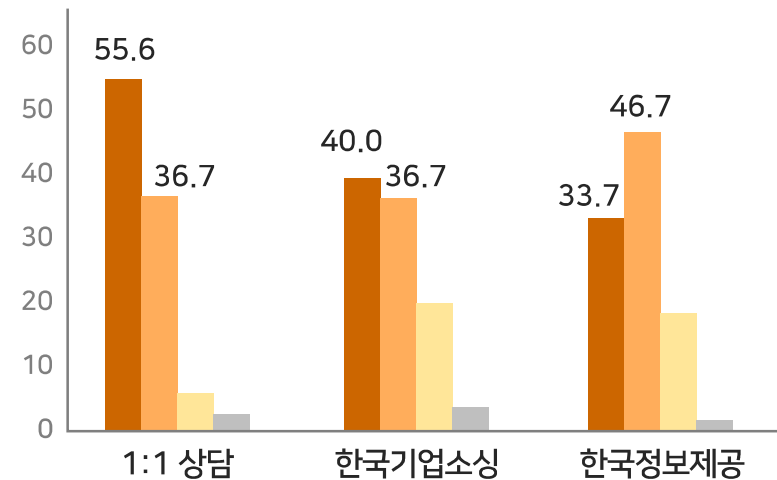


한국제품 수입시 애로사항

- ① 높은 제품가격(34.6%),
- ② 영어대응능력 및 소통(20.6%),
- ③ 인증비용과 소요시간(15.0%),
- ④ 수입관세(10.3%), ⑤ 물류, ⑥ 정보부족 등

KOTRA 사업에 대한 만족도

- ✓ 바이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로는 '화상 상담 지원'으로 무료통역원과 화상상담 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3%가 만족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3. 이슈 ① : 대규모 경기 부양책

서남아

✓ 기업 투자 촉진과 소비심리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 인도는 '24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진행 중
 -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전국 인프라(도로·상수도 등) 개선 및 국방사업(34억 달러)을 추진하고, 州 인프라 확충(16억 달러) 사업 확대
- 방글라데시는 **국제기구의 원조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이 확대** 중, 특히 중국(230억 달러)과 일본(59억 달러)의 정부 차원 투자 급증
 -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설계, 시공감리 등) 부문에서 '13년 최초 수주에 성공한 이후 매년 10건 이상 수주 성공
 - 한국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동향 : ('19) 8.9억불 13건, ('20.6월) 16.7억불, 2건
- 파키스탄은 공약인 '파키스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5백만호 건설」을 위해 **건설 산업 인센티브 패키지** 등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투자자금 출처 불문,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90% 감면, 건축자재 구입 시 원천세 면제 등
- 스리랑카는 '10~'15년 건설붐 당시의 대통령과 도시개발부 장관이 '19년 11월 대통령과 총리로 재당선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부흥이 기대

2020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로드쇼

일시

'20.10.15일

장소

방글라데시 다카市 내 호텔

참가기업

방글라데시 인프라 프로젝트 주요 발주처 8개기관, 우리기업 16개사
 → 다카 상하수도청(DWASA), 다카 지상철공사(DMTCL), 교량청(BBA), 철도청(RA), 도로교량부(RHD), 송전청(PGCB), 치타공 상하수도청(CWASA), 인프라개발공사(IDCOL)

내용

발주처 8개 기관 로드맵 및 프로젝트 웨비나 영상을 사전 공유
 국내기업과 발주처간 온·오프라인 1대1 핀포인트 상담 실시

관련 발주처 발표자료

www.onlinekorea.org/dhaka



3. 이슈 ① : 대규모 경기 부양책 (건설 프로젝트)

서남아

민관협력 (PPP) 참여

-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기회 참여
 - 현지 발주처 및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 투자진출 기회를 모색
 - 자금 회수가 안정적인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초기 입수하여 해당 분야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입찰 참여 필요
 - * Worldbank는 파키스탄 신드의 태양광 프로젝트(400MW)에 1억 달러를 투입
 -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한국정부의 지원 기관을 확인하여 지원 요청

개발 컨설팅

- 개발 초기 단계의 컨설팅 및 신도시 마스터 플랜 등 **컨설팅 수행** 제안
 - 무상 컨설팅을 통한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및 신뢰구축시 본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참여 가능성 제고

중고 건설기계

- 건설기계는 **중고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수입 제재 모니터링 필요
 - 인도건설기계 중 80% 이상이 중고이나, 5년 이상 사용한 중고기계 수입 금지('14.12월)

3. 이슈 ② : 전력부족 및 신재생에너지

서남아

- ✓ 에너지 부족은 서남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며 ① 열악한 송전 및 분전 인프라, ② 낙후된 발전소의 낮은 열효율, ③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심화가 주요 원인

- 인도는 환경오염개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전기차 육성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총력
- '19년 인도 전력생산 비중(%) : (석탄) 73.7, (풍력) 8.8 (수력) 7.5, (천연가스) 4.2, (태양광) 2.8

- 파키스탄은 수력발전소 증설을 적극 추진 환경 문제를 고려 신재생에너지 관심
-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

- 방글라데시 정부는 태양광 패널장비/부품 수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국가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목표
* '20.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1.3% 불과

인도 유력기업의 태양광 발전 관련협력 수요



한-인도 태양광 협력사업 (뭄바이무역관)

- 일시 : '20.10.13~16일
- 인도 14개사 & 한국 태양광 기자재 30개사 참가

- ✓ TATA Power : 부족한 모듈 충원 필요성 피력, 한국 제조기업 협력 희망
- ✓ ACME : 태양광 모듈 및 발전효율 제고 기자재(태양 추적 시스템 등) 구매에 관심
- ✓ Waaree : '21년부터 셀/모듈 제조 예정, 기술지원 및 공동투자 기업 유치 희망
- ✓ Jakson : 고효율 태양광 셀 제조 진출 의향 보유, 기술 보유 한국기업과 제휴 관심
- ✓ NSEFI(인도태양광 협회, 표제 협력사업 공동추진)
: 셀/모듈 조립장비, 고효율, Floating Panel, 저장장치, 모니터링, Smart Grid 분야에 한국기업 진출 가능

3. 이슈 ② : 전력부족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서남아

중국산
수입품 대체

→ 인도 태양광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은 78% 차지(16.9억불, '19년) → 수입선 다변화 노력

관세

- ① 중국·베트남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14.5~14.9%) 기간 1년 연장(~'21.7.29)
- ② 솔라 셀과 모듈에 기본관세 부과 계획 발표('20년 8월, 현재 미실시)
 - * 모듈 : 첫째 25%, 그 이후 40% / 셀 : 첫째 15%, 그 이후 30%
 - * 이는 한국산에도 해당(한-인도 CEPA 양허 리스트에 불포함)

비관세

- ① 태양광기자재 대상 인도표준인증(BIS) 등록의무 부과('19.1.1~)
- ② 기간산업(전력, 통신, 도로 등) 진출 업체는 부품 원산지 입증 및 신뢰성 검사 의무 부과 계획 발표('20.10월, 안보규제 조치 일환)
- ③ 프로젝트 발주조건 규제로 국내산 사용 장려 및 수입 억제 추진

→ 단기내 제조 투자가 불가능한 △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니터링 시스템(EMS) 수출기회

현지제조
기술제휴
공동투자

→ 단순 수출에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현지 기업의 태양광 기자재 제조 및 EPC 파트너(기술제휴, 공동투자)로서의 전략이 필요

→ 중국산 수입품 대체에 그치지 않고, Self-Reliant India 정책에 따라, 수출과 현지 생산을 적절히 혼합하는 전략 필요

3. 이슈 ③ : 반중국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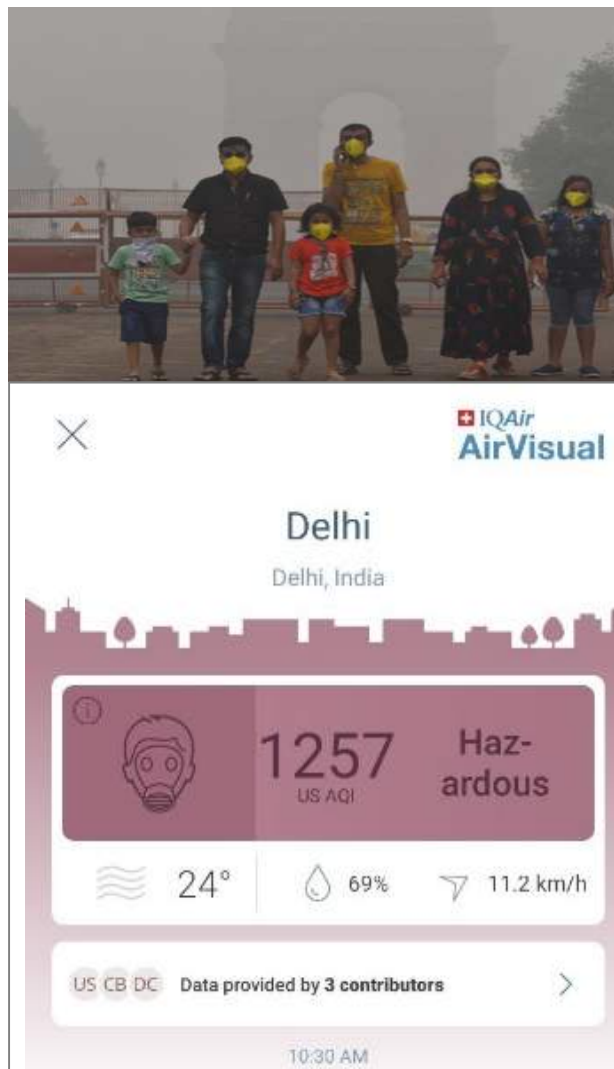
서남아

▶▶ 인-중 국경분쟁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재 및 투자 제재

분야	주요 내용
통신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프로젝트에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장비 금지 (6.18)
공공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 47억 루피(약 750억 원)의 공사계약 파기(6.18) • 하리아나주, 78억 루피(약 1,250억 원)의 화력발전장비 계약 취소(6.21) • 중국기업 대상 정부 프로젝트 조달 허가제 실시 (7.24)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구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 표시 강제화 (6.19)
인터넷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중국산 앱(틱톡, 위챗 등 230개) 금지 (6.29~) • 알리바바 워크벤치,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앱 43개에 대해 추가 사용 금지 (11.24~)
수입·통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어(중국산 40%), TV(중국산 38%) 사전허가제 도입 (6.12/7.30) • 중국산 물품 통관 지연(6.24) • 중국산 우회수입 조사 강화 (7.6) • 중국산 생활필수품 수입 시 인증 강제화 검토 (7.28) • 중국산 주요 수입품 관세 인상 검토 (8.11)
對인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州정부 대상, 중국기업 신규 투자계약 미체결 권고 (6.22) * 마하라슈트라주, 중국기업의 총 500억 루피(약 8천억 원) 투자 진행 보류
무역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장비(중국산 80%), 8월 1일부 세이프가드 1년 연장(7.30) * 중국산 철강 등 총 113건(반덤핑 103건) 무역구제 조치 중

3. 이슈 ④ : 환경오염 심각

서남아



- ✓ 폐수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하며, 향후 물 부족 우려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선정한 '19년 서남아 최대의 문제는 수자원 부족
 - * 인도는 공업용수의 약 40%, 생활 폐수의 약 63%가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
 - * 빠른 인구 증가, 산업화, 농업 분야에서 높은 물 소비, 정화시설의 미비가 주요 원인
- ✓ 전세계 Top 10 **공기오염**국 중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포함
 - 지난 20년간 서남아의 공기오염은 44% 악화되어 해당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5년 단축
 - 인도의 유독 이산화황(SO2)의 배출량은 전세계 1위(연간 595만톤)
- ✓ **고형 폐기물**의 증가와 비효율적 처리방법으로 환경오염 심각
 -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온 의료폐기물 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242개 반송('20.10월)

인도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

- Clean India 등 서남아 정부에서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
 - **[수질개선]**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처리 기능을 '19.5월 잘 샤크티(수자원, 하천 개발 부처)로 통합 신설해 '24년까지 70만 마을의 1억 4600만 가구에 식수를 공급
 - **[대기오염개선]** '19.1월 National Clean Air Program(NCAP)을 통해 공해수준을 향후 5년내 20~30%까지 개선목표 발표
 - * 인도 환경부(MoEFCC)는 '22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은 배출량을 60~80%까지 감축 의무화 발표('15.12월)
 - **[고형 폐기물]** 고형 폐기물 처리 비율이 '14년 18%에서 '20년 65%로 향상

3. 이슈 ④ : 환경오염 심각 (수처리, 쓰레기처리)

서남아

수처리 관련제품

- 환경 기술 부문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수처리, 담수화 프로젝트
- (유망품목) 수도계량기, 수도 계량기, 수질 관리 모니터, 수자원 관리 IT 시스템, 3차 처리기술, 수처리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대기오염 관련제품

- 대기질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
-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염원을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 깨끗한 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 급증
* '19년 인도내 공기청정기 수입 증가는 6.4%이며, 한국산의 점유율은 ('18) 2.2% → ('19) 7.3%

고형 폐기물

- 폐기물 수집 및 운송장비, 폐기물 냄새 제거를 위한 화학물질, 폐기물 활용 공장, 산업 및 도시 폐수 처리기계가 유망

진출전략

UN, Worldbank, ADB, JICA
자금 조달 프로젝트 모니터링

ADB는 파키스탄 신드에서 도시개선 프로그램(SCIP)을 통해 고형 폐기물 운영 서비스에 4억 달러를 제공.
Khyber Pakhtunkhwa에는 쓰레기 매립지 건설 계획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활용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경험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개발컨설팅 사업

건설실력 + 운영노하우 +
가격경쟁력을 위한 소싱능력,
+ 평판 등 필요

20년간 5천억원 규모의 스리랑카 상수처리 프로젝트를 수주한 코오롱 글로벌과의 인터뷰 중에서 ('20.11월)

3. 이슈 ⑤ : 제조인센티브 & 투자환경개선

서남아

(인도) Production Linked Incentive(PLI)

- ✓ 인도정부는 봉쇄가 한창인 '20년 4월, 전자회사가 현지 내 제조 시 매출의 4~6%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정책 시행
 - 인도는 '22년까지 전기전자부품 '완전수입대체'를 목표
 - 삼성전자, 폭스콘, 페가트론, 등 휴대폰 및 전자부품 16개사에 대한 PLI 계획 승인 ('20.10월)
 - 향후 5년간 약 166조원 규모 생산, 이 중 60%는 수출에 기여, 약 30만명의 직접 고용 예상

* 20.11월 PLI의 대상 산업을 전기전자에서 10개로 확대
 ACC 배터리/ 전자 및 테크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약 및 의약품/ 통신 네트워크/ 섬유/ 식가공품/ 고효율
 태양광 PV모듈/ 가전(에어컨, LED)/ 특수강



(파키스탄) Mobile Device Manufacturing Policy

- ✓ 파키스탄 산업부는 핸드폰 제조산업 육성 정책 발표('20.6.2일)
 - ① CBU 수입을 현지 조립생산(CKD/SKD)으로 유도하도록 세금 감면 조치를 2023년까지 제공
 - 완제품 수입이 아닌 현지 조립 시에는 기기 당 95-150 달러의 가격 인하효과 기대
 - ② 핸드폰 기기 연관 산업을 육성해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부품 국산화 비율
 - 목표와 달성 기한을 정해 '23.6.30일까지 핸드폰 부품 국산화율을 49%까지 올리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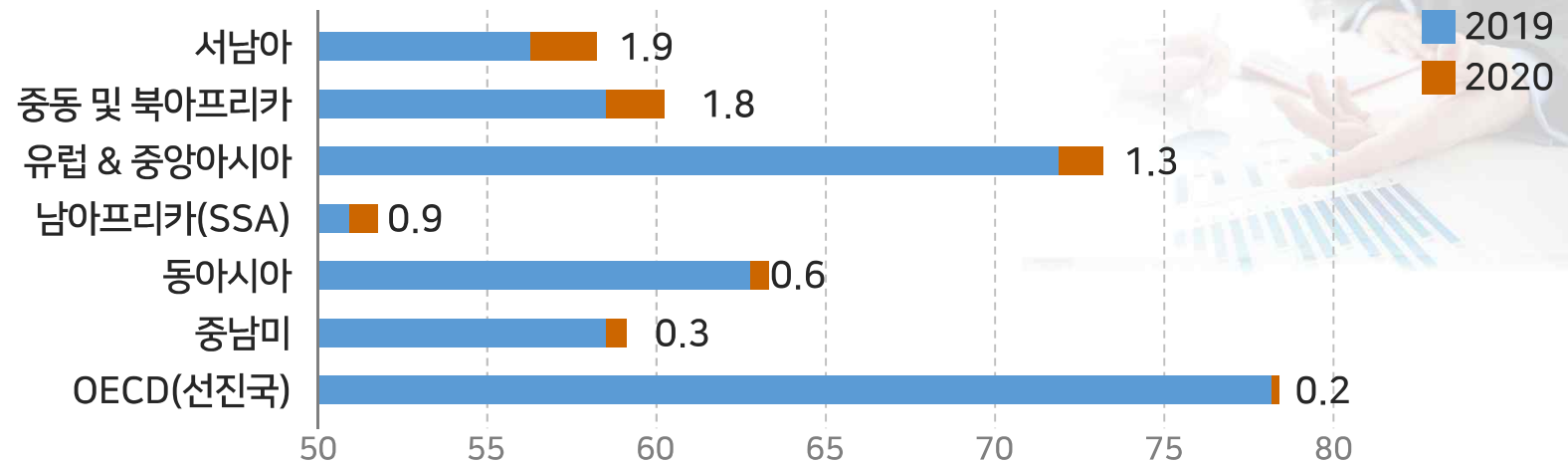
적용 기한	부품 국산화분야	국산화비율 목표
2022-06-30 (End of Year I)	현지 조립공장 설립 및 조립생산 시작 * 조립비용 제외	8%
	포장 재료 (Packing Materials)	2%
2023-06-30 (End of Year II)	충전기	2%
	블루투스 핸드프리	1%
	PCB 조립(Mother Board Assembly) * 조립비용 제외	10%
	하우징(부품덮개) 및 기타 플라스틱 부품 등 / 디스플레이	8%
	배터리	10%

* 자료 : Pakistan Engineering Development Board

3. 이슈 ⑤ : 제조인센티브 & 투자환경개선

서남아

▶▶▶ Ease of Doing Business 비교



- 서남아의 투자환경이 전년대비 20년에 전세계에서 가장 크게 개선
- 인도는 71점을 기록하여 서남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 * 인도는 익명·비대면 세무조사, 투명 조세제도 등을 시행하여 투자환경 개선 중
- 서남아에서는 파키스탄이 55.5점에서 61.0점으로 가장 크게 향상

* 자료 : World Bank

3. 이슈 ⑤ : 제조인센티브 & 투자환경개선 (소재부품장비)

서남아

수입수요가
덜 위축될 분야를
집중 공략

- 현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소부장 분야의 현지진출 확대**를 모색
 - 서남아는 산업기반이 미약하여 제조업 유치 전략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와 부품, 설비 등의 수입성향이 높음.
- 한인도 CEPA 양허관세 적용품목 및 파키스탄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NTB 2019-24)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관세 면세 및 인하가 추진되는 소부장 품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다각적인
진출방식 고려

-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으로 **루피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
- 달러를 보유한 우리 기업은 서남아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어, **對서남아 수출이 유망한 우리 기업**은 **현지기업과 파트너십**도 적극 검토
 - [유망 분야] 노후화된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자동차 부품 국산화 협력을 위한 기술제휴,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분야, 석유화학 및 비료 등 화학제품, 전자통신 기기 등
- 가격 인하를 위해 완제품 수출방식에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CKD 조립생산**도 검토

생산설비
수출

- 원재료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원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 **원재료 생산설비 확충**에 관심을 갖기 시작, **생산설비 수요** 증가
-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제조설비, 설비 업그레이드 장비 및 제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출 시장이 확대 될 전망

서남아를
수출거점으로
활용

- 저렴한 인건비, 수출 진흥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확대, **중동-아프리카의 교두보** 등의 기회요인 활용, 현지 생산·가공 거점 투자 추진



3. 이슈 ⑤ : 제조인센티브 & 투자환경개선 (지원 기관)

서남아

▶▶ Invest India내 KOREA plus 활용방안

- ✓ Invest India는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유치 기구로 산하에 일본과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Japan Desk와 Korea Desk('17.8월)를 설치
 - Korea Desk인 Korea plus 설치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통해 KOTRA내 Invest Korea 운영경험을 공유한 바 있음
- ✓ 주요 기능은 비즈니스 자문, 인센티브 소개, 투자지역 소개, 최근에는 스타트업 지원도 실시
- ✓ 홈페이지 : <https://www.investindia.gov.in/country/korea-plus>

▶▶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활용방안

- ✓ '20년 신규 개설한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인도 진출 기업 뿐 아니라 진출 희망 기업까지 활용가능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
 - 인도 진출 공공기관의 정보(시장 동향, 속보, 현지 절차·규정, 인증, 세무, 노무 등), 지원행사 정보(세미나, 전시회, 지원프로그램 등) 실시간 전달
 - 진출 기업 심층 실태조사 및 공급망 재편 현황 파악
 - 현지 상의, 유관기관, 연방·주 정부와의 협력하여 한국 기업 전용공단 추진 중
 -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한-인도간 특별기 운영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20.11월 기준, 1,238명 가입) : <https://open.kakao.com/o/gkl63x3b>
- ✓ 한국투자기업의 날 진행 중(매년 11월, 뉴델리)

3. 이슈 ⑥ : 언택트 소비 증가

서남아

▶▶▶ 전자상거래시장

- ✓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급성장 중
 - 락다운 기간 동안 오프라인 유통망이 전부 폐쇄된 가운데 온라인 소비재 업체만이 필수 소비재에 한해 영업이 가능했으며, 코로나 확산세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급증
 - 7~9월 인도의 전자상거래 주문은 전년 대비 31% 증가(유니코머스, '20.10월)
 -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을 병행하는 추세
 - 일본 의류 유통업체인 유니클로는 인도 진출 1년만에 온라인 시장 진출 발표 ('20.10월)
 -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따라 아마존, 월마트 등 기존 진출 기업 뿐 아니라, 구글 등 서남아시아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인도 시장에 큰 관심
 - 아마존, 인도 2위 소매체인 '퓨처 리테일'과의 제휴('20.1), 인도 주류시장 진출 준비('20.8) 등

▶▶▶ 온라인 결제

- ✓ 기존에는 배달 후 현금결제(Cash on Delivery, COD)가 온라인 쇼핑 결제의 85% 달했으나, 코로나로 온라인 결제 시장도 급성장
 - 인도의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는 '20.10월 한달간 20.7억(510억불 규모)건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월비 2배 수준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NPCI))

▶▶▶ 반중국 정서

- ✓ 인도정부의 중국 수입 제재와 소비자의 중국산에 대한 불만이 확대
 - 중국산 구별을 위해 인도내 온라인 판매시 원산지 표시 강제화 ('20.6월)

3. 이슈 ⑥ : 언택트 소비 증가

서남아

▶▶ 코로나를 극복 중인 방글라데시의 온라인 업체



✓ 식료품 구입 어플 Chaldal.com

-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해 생필품 쇼핑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 Chaldal 사는 식료품 구입 어플을 개발하여 운영함. 구입가격이 한화 3천원만 넘으면 무료 배달을 실시



✓ 음식 배달 어플 Food Panda

-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이용 확대에 장애가 있는 점에 착안, Foodpanda는 음식을 자전거로 배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 Foodpanda에 가입된 식당을 앱상에서 검색하여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방글라데시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Daraz.com ('18년 알리바바(中)가 인수)

-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 시 Daraz 직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
- 백화점과 쇼핑몰이 없는 방글라데시 특성과 배송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백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

3. 이슈 ⑥ : 언택트 소비 증가 (소비재)

서남아

인지도 제고
마케팅 강화

- **가격 중심의 서남아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타깃 소비자군을 명확히 하고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중요
 - 인도인들은 뷰티제품 구매시 동영상 시청, 온라인 검색, SNS리뷰 등 참고(google 등 보고서)
- 소비자들은 실제 체험 후에 프리미엄 가격을 내고 구입할 동인이 발생 (유망품목) 홈코노미(라면 등 간편식품), 화장품 등

전문 벤더 및
대형 유통망과
네트워크

유망 바이어(벤더)

-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
- 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전문 디스트리뷰터
- 유럽 브랜드 유통 바이어
- 프리미엄 소형 백화점 벤더

KOTRA(벤더풀링)

韓제품 수입상/벤더와 협력
↓
신규품목 발굴·소싱 지원
+
기존 제품의 유통채널 확대
(벤더등록지원)

유통 채널 다변화

On
Line

- Amazon India(인도)
- Shopclues(인도)
- Daraz (방글라·파키스탄)

Off
Line

- Springs Store(파키스탄)
- Ambience mall(인도)
- Food Hall(인도)

단가하락
노력

- 가격에 민감한 바이어 및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현지 생산 등 제품의 **단가하락 노력** 필수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도 CEPA 적용여부를 확인** 필요
 - 고급 소비재의 경우 높은 관세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 빈번
 - * 방글라데시의 화장품 관세율 128.67%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KOTRA 뉴델리, 첸나이 무역관)

- [목적] 한국-인도간 각종 관세·통관 애로사항에 대응하고 CEPA 활용도 제고
- [문의처] 뉴델리무역관 윤소연 관세사(+91-11-4230-6319, yoons@kotra.or.kr)

3. 이슈 ⑥ : 언택트 소비 증가 (KOTRA 관련 사업)

서남아

Shopclues 입점사업

인도 10대 온라인 쇼핑몰
(Qoo10 Korea가 '19.11월 인수)
입점사업

- [기간] '21년 연중
- [규모] 내수·스타트업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50개사 120개 제품
- [주요 품목]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생활용품, 식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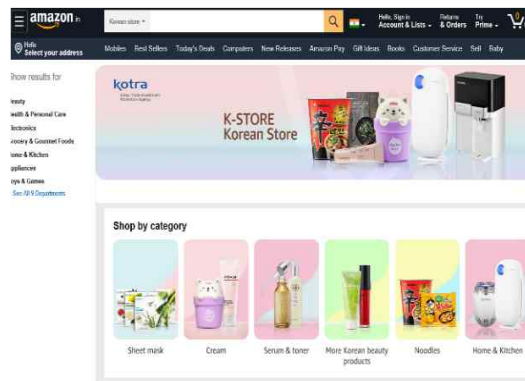


Shopclues 한국관
www.shopclues.com/kotra.html

Amazon India 입점사업

인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 [기간] '21년 연중
- [규모] 내수·스타트업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5개사
- 아마존 Prime Day 캠페인 활용
- 현지 한류 팬클럽과 연계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프로모션 수행



Amazon India 한국관
www.amazon.in/koreanstore

Spring Store 팝업스토어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인 카라치 시
중·상류층 상권 내 소재 수입 브랜드
전문판매 매장

- [기간] '21년 연중
- [장소] 카라치 소재 Spring Store매장
- [규모] 21개사 35개 상품
- [마케팅/판촉] 현지 공휴일 연계 판촉전,
온-오프라인 홍보
- [주요 품목] IT 기기 및 액세서리, 화장품,
헤어케어, 할랄인증 식품 등



www.springs.com.pk

3. 이슈 ⑦ : K방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서남아

✓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

- 파키스탄은 '20/21년 예산안에서 보건분야에 전년대비 130.5% 증액 배정

* '20.4월~9월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저금리 자금 조달, 의료기관 대출 한도 증가 등 의료 업계 대상 파격적인 지원책이 운영되기도 함.

✓ 급속한 경제 성장, 중산층 소득 증가 등으로 전문적이며 **양질의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 인도의 의료산업은 '18년 1,600억달러에 달하며, '22년에는 3,700억달러로 확대 전망(IBEf)

✓ 서남아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은 낮은 편

- 암진단, 의료영상, 초음파 스캐너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
- 파키스탄은 의료기기 등록절차 간소화 추진하였으며, 의료 네트워크 확장 계획

✓ 서남아는 농촌지역과 Tier 2,3 도시에서 만성적인 **의료인프라 부족 직면**

- 인도의 병원산업은 매년 16~17% 성장하고 있으며 '23년에는 1,300억불에 이를 전망
- 인도 인구의 15%만이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에 대한 취약성 노출

South Korea controlled its coronavirus outbreak in just 20 days. Here are the highlights from its 90-page playbook for flattening the curve.

■ AYLIN WOODWARD | APR 18, 2020, 17:56 IST



South Korean soldiers wearing protective gear walk on a street in front of Daegu's city hall after the rapid rise in coronavirus cases on March 2, 2020. REUTERS/Kim Kyung-Hoon

K방역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

* Business Insider ('20.4.18일자)

3. 이슈 ⑦ : K방역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의료바이오)

서남아

✓ [유망분야] 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원격의료, 의료관광, 의료 보험

- ➔ 인도내 유망품목은 의료 및 수술도구, 의료 영상, 전자의료기기, 정형외과 및 보철기구, 암진단, 안과 기구, 치아 교정장비 및 임플란트 등
- ➔ 파키스탄내 유망품목은 호흡기, 모니터 및 환풍기, 치아 교정 장비, X-레이 및 방사선 촬영기, 정형외과 및 보철기 등
- ➔ 스리랑카내 유망품목은 코로나 관련 의약품, 마스크, 진단키트, 호흡기 등 방역 및 치료용품이며, 개인위생, 헬스케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고조

✓ [생명공학] 인도의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의 2% 주로는 **임상실험, 계약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서남아는 아직 초기 단계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 인도에서는 Apollo, AIIMS 등 민간 병원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채택

인도 IP Desk 활용방법

특허청과 KOTRA는 지재산 침해사례 대응, 상표권 등록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인도 IP Desk 담당자 : 임수정 대리 +91-11-4230-6345,
lsoojung1002@gmail.com

✓ 현지 에이전트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므로 적절한 대응 필요

- ➔ 방글라데시는 관료주의로 입찰이나 직접 구매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발생하므로 **에이전트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자금력과 정부대응능력**까지도 고려해야 함
- ➔ 현지 에이전트는 **의료 장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S 수행 필요

✓ 서남아는 **정부 외에도 병원그룹,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납품 시도 필요

- ➔ 바이어들은 국제 기준, 국제 평판을 갖춘 기계 수입을 희망
 - 인도는 Max, Hinduja Group, Fortis, Apollo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그룹이 고급 인프라를 구축
 - 방글라데시는 국민의 70% 이상이 국영병원을 이용하나, 고급 의료기기 설비들은 민간 병원에서 주로 수입
- ➔ 현재 EDCF 자금 지원으로 건설 중인 방글라데시의 BSMMU병원 증축(의료장비 포함)은 현지 의료 관계자들에게 한국산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 예상
 - 해당 시설 등을 통하면 시장 조사가 가능해 초기 현지 반응을 파악 가능

✓ 높은 비관세 장벽과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통제, 취약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약점 요소**이므로 인도 **IP Desk 활용 필요**

3. 이슈 ⑧ : 인터넷 속도 개선

서남아

Digital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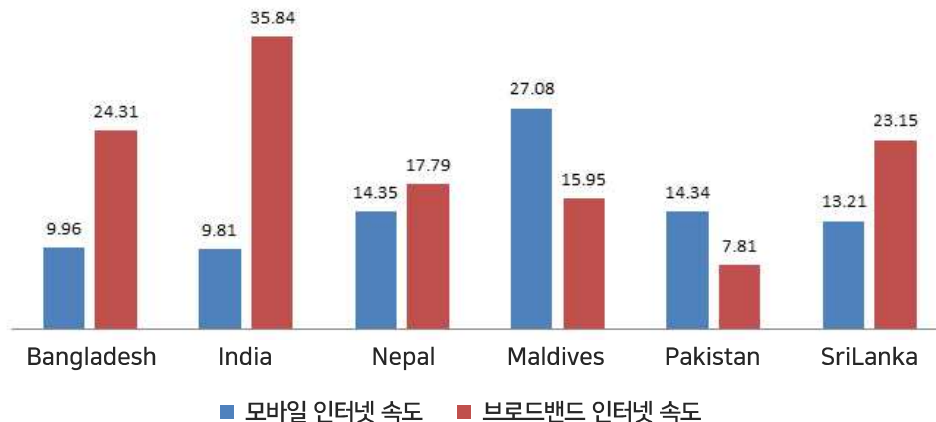
- ✓ 인도 통신부는 '22년까지 도시외곽에 광대역 100% 인터넷 연결, 모바일 타워의 50% 광케이블화, 300만 Km의 광케이블 설치를 목표로 함.

Digital Bangladesh

- ✓ ICT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금전적 혜택, 인큐베이터 시설 등 인프라 제공, 전국에 ICT 교육센터(Digital Lab) 구축

- ➔ 스리랑카 소비자의 43%는 코로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도
 - 13%가 온라인 학습사이트 이용 시도, 12%가 핸드폰으로 생중계 시청 시도, 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세금 납부 시도, 7%가 온라인 종교행사 참가(Kantar 마케팅 리서치 2020 자료)

▶▶▶ 서남아시아 국가별 인터넷 속도(Mbps) 비교



- ✓ 인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억명 '21년에는 8.3억명 예상 (IBFF)

- ✓ 방글라데시는 인구의 62%인 1억명이 인터넷 가입('20.5월, BTRC)

* 자료 : Speedtest Global Index ('20.4월 기준)

3. 이슈 ⑧ : 인터넷 속도 개선

서남아

▶▶▶ 인도의 Digital India, 방글라데시 'Digital Bangladesh' 등 ICT 구축 정책 강화

- ✓ 인도 정부는 IT산업 활성화로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인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3대 비전 및 계획 발표

1)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 ① 초고속 인터넷 및 사이버 스페이스 구축
- ②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급
- ③ 공공 클라우드 개발, 공공서비스 센터 접근으로의 용이

2) 정부 시스템 및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Governance & Service on Demand)

- ④ 행정기관 통합 시스템 구축
- 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 ⑥ 행정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비즈니스 지원
- ⑦ 금융거래 전자화 및 현금 없는 사회 구축

3) 디지털 권리 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 ⑧ 디지털 서비스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
- ⑨ 정부 주도 플랫폼 구축
- ⑩ 모든 문서·증명서 클라우드화

▶▶▶ 휴대폰 이용자수 및 인터넷 확대

3. 이슈 ⑧ : 인터넷 속도 개선 (ICT)

서남아

IT 서비스

- '19/20 회계연도에 970억 달러로 전년대비 6.7% 성장 예상
- 챗봇, 자연어 처리(NCP), 로봇틱 처리 자동화(RPA), 인지분석, 보안 운영센터(SOC),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데이터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AR, VR

ICT인프라

- 통신타워, 데이터센터 등 인도의 데이터 소비는 '17년 700만 TB에서 '22년 1,100만 TB로 확대될 전망
-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쇼핑,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증가로 온라인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고속 광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전망

사이버보안

- 연평균성장률이 15.6%로 '22년까지 30.5억달러로 성장 예상
- 은행 및 금융 서비스산업, IT, IT서비스, 전자정부의 확대 등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보다 확대되고 있음.

전자상거래

- '19/20 회계연도에 540억달러로 전년대비 25% 성장
- 여행, 식료품, 식품배달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이 강조되었던 분야인 헬스케어, 의약품, 보석, 차량공유, 미디어 등으로도 확장되고 있음.

핀테크 디지털 금융

- '29년에는 소매 결제의 60%를 처리해 약 1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할 전망
- 챗봇, 자연어 처리(NCP), 로봇틱 처리 자동화(RPA), 인지분석, 보안 운영센터(SOC),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데이터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AR, VR

컨텐츠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 헬스케어 및 전자정부 솔루션, 전자상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등

3. 이슈 ⑨ : 산업한류에서 문화한류로

서남아

최근 인도내 한국 제품 점유율

구분	스마트폰	세탁기	TV	자동차
기준일	'20.10월	'20.7월	'20.6월	'20.8월
전년비 성장률	8%	10.00%	7.50%	-7.10%
1위	삼성전자 (32%)	LG전자 (20.4%)	샤오미 (27%)	Maruti Suzuki (49.7%)
2위	샤오미 (22%)	삼성전자 (12.6%)	LG전자 (14%)	Hyundai (18.9%)
3위	Vivo (21.6%)	Whirlpool (11.8%)	삼성전자 (10%)	Tata Motors (5.7%)



[스마트폰]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결과로 서남아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사용자의 증가



[가전제품] 메이드 출퇴근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한 중산층이 직접 살림을 하면서 식기세척기, 세탁기, 청소기 등에 대한 수요 확대



[자동차] 전염으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로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

K방역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발리우드와 서양 문화 선호가 강한 인도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 고조**

- 인도 동북부에 국한되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내 한류팬은 최소 27만명 이상으로 파악

* 인도 동북부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아리랑 TV, KBS 월드 등이 반영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글로벌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는 3월 이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최소 6편의 한국 드라마들이 '오늘의 톱 10'으로 선정



인도내 한국 콘텐츠 인기 이유 (Livemint, '20.7월)

- ① 인도 젊은이들이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을 발견
- ② 한류 콘텐츠의 현대성에 매료
- ③ 글로벌 OTT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

3. 이슈 ⑨ : 산업한류에서 문화한류로

서남아

- ✓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원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제품을 홍보
 - 친선퀴즈대회, 에세이대회, K-pop 경연대회 등에 약 10만명이 참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제품의 시연, 체험행사 가능
- ✓ 뉴델리 IKSC, 벵갈루루 NIPA 등 정부 지원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 활용
 - [사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CAFE24가 '21년 인도에 진출하고, IKSC에 입주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지원 예정

▶▶ 한국 Startup 진출현황 및 여건

- ➔ 뉴델리 IKSC Center (10개사), 벵갈루루 NIPA 인큐베이션 센터(18개사)
: 사무실 운영비 지원, 정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이용



IKSC

약 358평 규모(총 12,878s/f)의 개방형 비즈니스 Co-working 공간(사무공간) 독립형 14개실, 개방형 45석 (공용시설) 소회의실, 컨퍼런스룸(IR룸, 강의실 등), 카페 라운지, 공용창고 등 비용 시중가의 10% 상당



V

2021년 KOTRA 지원 사업

1. KOTRA 서남아 대형 사업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

서남아

3월 경	5월 경	7월경
서남아 소비재 상담회	서남아 GP 상담 주간	서남아 한국 상품전
화장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자동차, 화학, 건설, 방산, 의약품 등	핀테크 IT, 콘텐츠, 위생용품 등
바이어 150, 국내기업 200개사	바이어 50, 국내기업 100개사	바이어 200, 국내기업 150개사



상시지원



- ✓ 온라인 - 인도 Shopclues(50개사), Amazon India(30개사) 입점 지원
- ✓ 오프라인 - 파키스탄 Spring Store(30개사) 입점 지원
- ✓ 사업 참가기업 대상 샘플 발송 지원(100개사) 등 물류 지원

< 서남아 진출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Premium Korea 붐업 >
2021 한-서남아 경제협력대전 (10월 경)

(인) Korea Fair in India, (파) 산업협력 파트너십, (방) 쇼케이스 Korea
한류 + 소비재 + GP + 스타트업 + 취업
 바이어 500개사, 국내기업 200개사, 취업희망자 200명

신남방정책특위

주인도 한국대사관

KOTRA 서남아본부

인도비즈니스 협력센터

유
관
기
관

중기기술교류센터
 한인도 연구협력센터
 K-ICT Boot Camp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Invest India(Korea plus)

K
O
T
R
A

해외투자지원센터
 CEPA 운영지원센터
 K-move/Contact Korea
 IP Desk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 KOTRA 지원 사업

서남아

1. 상담 및 진단 서비스

수출 전문위원/ 무역관의 무료상담
전화/ 온라인 상담, 이동 KOTRA, VOC
글로벌 역량 진단 (GCL Test)
해외시장 빅봇
KOTRA 해외 시장 뉴스
news.kotra.or.kr

2. 바이어 발굴 지원

해외시장 조사
사업파트너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지원
국내 : 수출 상담회, 핀포인트 상담회,
국내 전시회
현지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3. 단계별/산업별 중점지원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기간제사업
[해외지사화](#), 공동물류 네트워크사업,
월드챔프 육성사업, 수출도약중견기업 육성사업,
세계 일류상품육성사업, 선도기업육성사업

4. 수출 지원 인프라

수출바우처 서비스
경제외교 활용사업 [온라인 후속상담회](#)
수출 인큐베이터, 열린무역관

5. 해외진출지원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투자진출 및 유턴지원
[해외M&A지원사업](#)

6. 기타지원

일자리 사업 [한국인재](#), [서남아인재](#) 채용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교육 및 연수
개발 협력 및 CSR 사업

3. 2021년 KOTRA 지원 사업 LIST(1)

서남아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0	-	서남아 바이어용 홈페이지 운영	www.onlinekorea.org
1	코로나 경기부양 및 경제혁신 기회 활용	종합 코로나 극복 서남아 온라인 수출 상담회	3월 / 서남아
2		의료기기 인도 의료기기 전략사절단	2분기 / 뉴델리
3		종합 서남아 히든 기회시장 진출유망품목 사절단 2021	2분기/ 카라치, 다카
4		건설 파키스탄 건설기계/건축자재 시장 진출 로드쇼	3분기/카라치 및 라호르
5		인프라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로드쇼	11월 / 다카
6		기계·제조설비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로드쇼	11월 / 다카
7		종합 한-파키스탄 산업협력 콜라보 2021	3분기 / 카라치
8		신재생에너지 서남아 전략시장 상담회	4분기 / 암다바드
9		IT/Bio BTS(Bengaluru Tech Submit) 2021연계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 지원	하반기 / 벵갈루루
10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마케팅 강화	소비재 아마존인디아 입점 지원	상반기 / 벵갈루루
11		소비재 인도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플랫폼 진출지원	연중 / 뭄바이
12		소비재 인도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Q10)	2분기 / 뉴델리
13		소비재 플립카트, 스냅딜 입점 지원 사업	하반기 / 벵갈루루
14		소비재 Springs Store 프리미엄 팝업 스토어 운영	연중 / 카라치
15		소비재 한류 소비재 화상상담회 - K-Food, K-Beauty, K-Medical	상반기 / 뭄바이
16		소비재 Korea Fair in India 2021 개최	4분기 / 뉴델리
17		소비재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쇼케이스 코리아	10월 / 다카

3. 2021년 KOTRA 지원 사업 LIST(2)

서남아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8	GVC 확대를 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	중간재 인도제조업 GVC 진입 지원 사업	연중 / 뭄바이
19		방산 에어로 인디아 2021 연계 항공우주, 방산보안 무역사절단	상반기 / 벵갈루루
20		섬유 서남아 텍스타일 공급망 구축사업	11월 / 콜롬보
21		자동차부품 자동차 분야 집중 사절단	5월/첸나이
22		소부장 인도 GP 핀포인트 상담회	하반기 / 뭄바이
23		섬유·섬유기계 한-인도 텍스타일 매칭데이	2분기 / 암다바드
24		종합 의료기기, 식품, 교육, 건축 등 종합상담회	7월 / 첸나이
25	경험공유를 통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 강화	환경 인도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4분기 / 벵갈루루
26		스타트업 한-인도 스타트업 협업체계 구축	연중 / 뉴델리, 벵갈루루
27		취업 인도 K-Move 거점·지원 무역관 운영	연중 / 뉴델리, 첸나이
28		인력 Contact Korea 거점 무역관 운영	연중 / 뉴델리, 첸나이
29		정보제공 인도 진출기업 대상 현지 정부 및 시장동향 정보 실시간 제공 채널 운영	연중 / 뉴델리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협업)
30		현지진출 인도 진출기업 애로 해소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세무, 노무, 통관, 지재권 등 관심분야 설명 및 애로사항 해소 - 반기별 설명회 개최 등 비즈니스 정보 제공	연중 / 뉴델리, 벵갈루루, 첸나이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협업)
31		상생협력 인도 산업정책에 부합한 투자진출 - 한국투자자의 날, 한국기업 전용공단 등	연중 / 뉴델리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협업)
32		CEPA 인도수출입 기업 컨설팅 지원	연중 / 뉴델리, 첸나이
33		현지진출 남인도 진출기업 경제 동향 웨비나 - 첸나이 총영사관과 공동 추진	반기별 1회 첸나이
34		IP-DESK 현지 진출기업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 - 특허청과 협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및 사례 발표	3분기 / 뉴델리

감사합니다

서남아지역본부장 | kotra

